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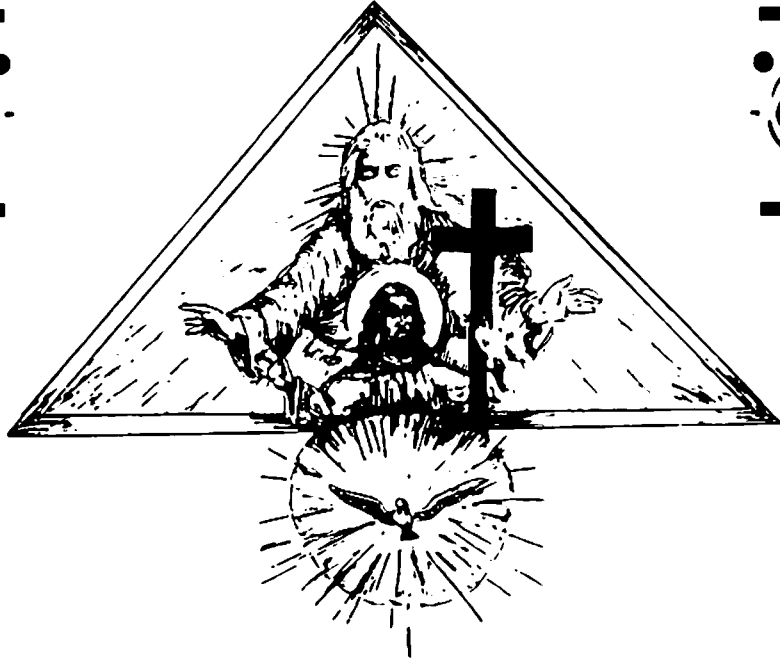
천국에서 내리는 장미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말씀들 1990-1994

천주 성삼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불멸의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와 성신 이시다.
너희가 만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너희는 聖三位와 결합하지 못할 것이다!”

1979. 9. 14

“나의 자녀들아, 기억하여라 : 어느 봉사자들도 (남, 여) 자신들이 이 사명에 불리움을 받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까닭은 성자와 성신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1977. 2. 10.

예수님: “너희는 성체안에 계신 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빛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빛이고 길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나는 빛이요 길이다!”

천상의 모후여 네게 하례 하나이다!

이 책은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며 인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분께서 십자가의 베로니카(베로니카 류우켄)를 통해서 세상에 내려주신 메세지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 하느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三位)안에서 제 이위(第二位)이신 분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세상에 하신 말씀이시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 메세지는 진실이기에 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인류는 더 큰 오류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채, 그들의 하느님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내려주신 지혜를 따라 살지않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로서, 또 모든 사람에게 빛의 등대로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기도하며 하느님께 속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훨씬 심한 매를 맞을 것이다.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1983. 5. 21. 성모님

“이 마지막 날의 천국의 사도로서, 빛의 전령으로서 전진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광경을 열어 보일 수만 있다면, 보속의 공(혜성)과 충돌하는 무서운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어다닐 것이다!”

1979. 9. 28. 성모님

1) 베이사이드의 성모 발현에 대한 교회의 조사에 대해서: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마쳤다고 부루클린 교구는 선언했지만, 그러한 조사는 결코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하는 바이다.

몬시뇰 킹께서는 (그 당시 부루클린 교구의 상서국장)캐나다 신문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로니카를 조사 한적도 없으며, 봉사자들조차도 면담하지 않았고, 치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다.

이 발현을 믿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가까이 접근조차 한적이 결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둔다.

발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회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킹 몬시뇰은 미국 주교님들에게 신자들이 철야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단념시키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75년 5월 18일, 베로니카가 받은 메시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때가 되면 그 주교는 하느님으로부터 의심할 수 없는 징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밀게될 것이다.”

2) 성모 발현에 대한 교회의 인가 여부에 대해서: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교회법 2318 항 및 1399 항을 폐지하셨다.

따라서 계시, 환시, 기적이 신앙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어느 누구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 교회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아, 빛속에서 인내하여라. 너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어라. 그 까닭은 이제 곧 지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질척 통곡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 너희가 마음 속에 빛을 간직하고 있고,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빛을 간직하고 있다면, 지상에 재앙이 닥치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사탄에게 너희들의 몸을 넘긴 자들아, 별(星)이나 돌(石), 시(時)나 표징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아, 내 눈에는 너희들은 위상승배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이교도들이다! 너희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며 하느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별을 보고 짐을 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1977. 5. 18.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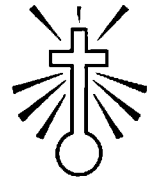
읽기전 기도

오소서 성신이여,
 믿는이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들안에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당신 성신을 보내소서,
 그들이 창조되리이다.
그리고 지상의 열이 새롭게 되리이다.

오, 주님, 성신의 빛으로 믿는이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시여,
 같은 성신을 우리에게 베푸시어
 매사에 바른 판단을 하게하시고,
 그분의 위로까지도 즐기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로사리오



성모님: "너희가 하나님을 거슬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경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재자로서 나를 택하시어 너희들에게 내려 보내셨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긴 세월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많은 성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1978. 7. 15)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원문(原文)의 글귀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된다. 말을 바꾸지 말아라. 덧붙이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아라. 온전히 전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은총을 보아라. 그것들을 하늘에 저장하여라!"
(1978. 6. 1)



예수님: "그들이 나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방해 할 것임을 알아두어라. 그 까닭은 그들이 빛속에 있지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 인도된 주교들, 추기경들이 나의 어머니의 사명을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1977. 9. 6)



예수님: "너희가 초자연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전쟁중이다. 일찌기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무서운 전쟁속에 있으며 이와같은 전쟁은 세상 마칠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영적 전쟁이며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간의 싸움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모두 시험을 받고 있다.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너희는 결정해야 한다..."
(1977. 11. 19)

<배경>

베로니카 부인은 다섯 자녀의 어머니였으며, 1995년 74세로 귀천하였다. 1968년 6월까지 광범한 뉴-욕의 주부로서 생활하였으며, 남편 아더는 건설 기술자였고, 딸과 네 아들이 있었다.

미국의 정치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지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저격당한 그 날, 그녀는 뉴-욕 플라싱에 있는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그의 남편을 배웅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있을때 라디오 뉴-스를 통하여 죽어가는 상원의원을 위해서 기도를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바치는 순간 장미 향기를 체험하였다.

얼마 후 성녀 소화 테레사(그녀는 언제나 '장미'를 연상시키는 성녀였다. "내가 이승을 떠난후, 나는 하늘에서 장미 비(雨)를 내려 줄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유명한 약속이 있다)가 베로니카의 집에서 그녀에게 발현하였다. 그리고 이 환시는 베로니카의 아들, 레이몬드(그 당시 10살)도 같이 체험하였다. 레이몬드는 1974년 1월 29일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베로니카의 자녀들 중에서 베로니카와 가장 가까웠던 그의 죽음은 베로니카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슬픔이었다.

성녀 테레사의 환시가 있은후 베로니카에게는 다른 환시들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초기의 환시중에 하나는 어느 날 베로니카가 뉴 욕 거리를 걷고 있을때, 하늘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보았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관 쓰신 머리로 녹아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너무 가까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었으며, 짧은 턱수염을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 환시는 그녀가 쇼핑 카트를 끌고 스프링 필드 대로(大路)를 걷고 있을때 일어났다.

그녀의 초기 환시들은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듯 했다. 성모님께서는 1970년 베로니카에게 천주 교회의 대축일 전야(前夜)에 구(舊) 성 로버트 벨라민 교회 마당에서 (N.Y.의 Queen, Bayside Hill에 위치해 있다.) 목주의 철야 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셨다.

성모님께서는 그곳이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로사리오의 성모' 라는 이름으로 성역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성모님께서는 날씨나 그 밖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철야기도가 계속 된다면, 성모님께서 철야기도를 바치는 동안 이곳에 오실 것이며, 전 세계를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철야기도의 지향은 교황과 세상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바쳐줄 것과 철야 기도 동안 순례자들이 소리를 내어서 목주의 기도를 바쳐 줄 것을 요청하셨다.

1970년 6월 18일 이후 철야기도는 계속되었으며, 천국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베로니카가 한마디 한마디 반복해서 세상에 전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메세지의 내용은 계몽적이다. 성모님께서는 메세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익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천주 교회 내의 부패, 바티칸 내부의 악들, 교황 바오로의 고동, 그리고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께 보속을 바쳐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며, 만일 전 세계가 보속을 바치지 않고, 하느님과 천상에서 내려주시신 규율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무서운 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 메세지는 루르드, 라 샬레뜨, 플메인, 파티마, 보랭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발현하신 그 여인으로부터 지상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보속을 청하는 또 다른 부르심이며, 이 메세지에는 전 세계를 향한 경고를 담고있다. 또 기적들 그리고 '보속의 꿈' (아마도 해성일 것이다)의 형태로 무서운 벌이 지상을 내려친 것이며, 인류의 3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벌이 임박해 있다고 말씀하신다.

"시련에 의해서 인류는 점차적으로 정화될 것이다. 지상을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연(自然)계를 이용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그것들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홍수가 범람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대기권은 뜨거워질 것이다. 그 까닭은 인간이 별(星)을 탐색하며, 너무도 높이 오르고있기 때문이다."
(1977. 2. 1 예수님)



탈혼중의 베로니카가 철야 기도중에 십자가와 목주들 축성받기 위해서 들어 올리고 있다 (Ted cach 촬영)



1973년 5월 철야 기도때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그곳 하늘을 촬영하였으며, 어떠한 암시를 주는 초자연적 사진이 현상되어 나왔다.
'6'자 두개가 'W' 글자위에 달려있다. '6'은 아제 곧 지상에 풀려나올 4악마들을 뜻한다. '6'은 다가오고있는 6명을.
'6'은 고통의 6일.
'6'은 별밤을 6명을 뜻한다고 하셨다.
1971년 2월 11일 성모님께서는 베로니카를 통해서 Mr. 666 또는 적 그리스도를 위와같이 설명하셨다:

시작을하면서....

베이스айд -파티마의 계속 - 하느님의 마지막 경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때,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며, 우리들의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포르투갈, 파티마 언덕에서 3명의 양치기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인류가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께 속죄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가혹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전쟁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막고 나의 하자 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루시아에게 함께 하실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티없으신 성심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너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시며 (그녀의 진실된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이 시대에 성모님의 사명과 우리가 실천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은총을 받기위해서- 모두가 묵주의 기도를 해야한다.!

1917년 7월 13일 성모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본 곳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의 티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가 말해준 것들을 이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을 것이며, 평화가 올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할 것을 요청하셨다... 5년의 첫 토요일 미사와 영성체를 보속으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바치고... 매일 묵주의 기도... 매일의 보속을 드리고... 이 모두를 천상 징의를 상해드린 것을 보상하는 뜻으로...

1917년 8월 13일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희생을 바칠때 바다 자주) 다음과 같이 염하여라".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함이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상해드린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하나이다."

세명의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불신(不信)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루시아는 성모님께서 그 곳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 한만한 표시를 청하였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 10월 13일 루시아가 청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슬프게도 인류는 죄를 뉘우치고 배상을 바치는데 실패하였다!!! - 그 결과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우리들의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더욱 경고를 하셨다: "너희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 오류를 전 세계로 전파할 것이고, 또 다른 전쟁과 교회의 박해가 올 것이다: 착한 이들이 순교할 것이다, 교황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상의 인류에게는 슬픈 일이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이 요청에 따라서 우리들의 심각한 개인적인 의무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제3비밀을 루시아에게 맡겼다 - 그것은 봉(封)해진 채, 그녀의 주교에게 맡겨졌고, 1960년에 교황님께서 열어 보셨다.

오랜 기다림끝에 1917년 10월 13일 하느님으로부터 '표징'을 받았다 - '태양의 기적'이 그것이며 7만명의 사람이 목격하였다. 그 '태양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어느 사람이 간략하게 요약한 말을 들어보자: '태양이 스스로 돌기 시작했고 온갖 색의 빛이 춤추듯이 일렁이며 쏟아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수레바퀴가 온갖 색조의 무지개 빛을 내며 도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운동 진홍색으로 둘러싸였으며, 또 다른 때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늘에서 풀러나오며 지구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마치 무섭도록 거대한 무게로 우리를 짓부술 것 같이... 그러나 지구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기적을 인류에게 내려주셨다. 물론 태양이 창공에서 풀러나와서 지구를 향해서 돌진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위에 묘사된 태양의 기적은 지금 베이사이드란 포함해서 미국 전 지역 하늘에서 목격되고있다!

교황 비오 12세 -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자)께서는 -파티마 성모 발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하셨다. 그러나 제 3 비밀의 내용은 1960년대도 세상에 비밀로 남겨놓았다. 1978년 5월 13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슬퍼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그들이 파티마에서 내가 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은 단순하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는 내용의 성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또 경고하지 않았느냐! 나의 딸아, 제 3비밀은 이것이다: 사탄이 나의 성자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이었다!”

1978년 12월 7일, 성모님께서서는 “나의 딸아, 파티마, 그래, 내 충고를 따라서 실천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내 메시지의 주요한 부분은 밝히지 않았고...!” 라고 하셨다.

베이사이드에서 발현이 시작되면서 곧... 베이사이드의 발현은 파티마의 계속임이 분명해졌다.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표징을 주셨다: ‘태양의 기적’ - 파티마에서 하셨듯이! 많은 순례자들이 태양의 기적을 목격하였으며 증언하였다. 이 현상과 함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파티마의 계속이다’ 라고 하셨다.

회야친타와 프란치스코(파티마의 어린 두 시현자) 역시 베이사이드에 발현하였다. 하느님께서서는 회야친타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초자연적으로 글을 쓰도록 허락하셨다. 잘 알려진 그 ‘Jacinta 1972 사진’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다가오고 있는 징벌에 대해서 수수께끼처럼 세상에 문제를 내어 주셨다.

여러 번 베로니카는 ‘파티마의 성모께서 입으셨던 그 옷차림의 성모님을 베이사이드에서 묘사하곤 하였다.- 파티마에서 쓰셨던 그 왕관과 함께.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베이사이드에서 성모발현은 파티마의 계속 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파티마를 믿지 않고는 베이사이드를 믿을수 없으며, 또 역시 베이사이드를 파티마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 파티마 메시지를 안다는 그것은, 베이사이드 메시지를 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자비심과 선하심으로, 이 위험한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려주시며 긴급하게 지시를 하고 계신다.

회전하는 태양의 기적은 미국 전역에서 목격되었다. ‘회전하는 태양’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매월 13일에 형형 색색으로 빛나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파티마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가!

은갓색의 빛줄기’의 광경은, 마찬가지로,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에서 열린 칠야 기도때에도 목격되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태양의 기적과 함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이사이드를 주목하며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보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대 경고 이전에 그분의 마지막 경고를 내려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1970년 6월 18일 처음으로 우리들의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베이사이드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나의 눈물이 너희들 위에 떨어지고 있다...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매우 많은 영혼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나는 파티마에서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다.

“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오래전에 파티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보속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망치와 낫을 상징하는 그들의 부하들이 이 세상에서 국가들을 없애버리고 죽음, 파괴, 그리고 노예화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지 않았느냐.?”

파티마의 메시지는 무시되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파티마에서 경고한 이후로 긴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이세상에서 뒷전으로 밀어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메시지를 숨겨 두거나 몰리칠 수 없다. 그 까닭은 나의 자녀들아, 지상에서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날들은 지금 카운트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아름답고 현명한 미국이 어리석게 처신을하고 있다. 그 까닭은 바로 너희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파괴의 장면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술취한 사람들 같구나,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는 것이냐? 너희 생각에 사람들이 그 파괴를 막을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말한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신앙을 잃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하느님을 외면한 결과, 너희는 눈이 멀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죄가 너희 가운데서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들이 빛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박해하며 없애려고 할 것임을 알아 두어라. 이렇게 잘못 인도되고 타락한 주교, 추기경들이 나의 어머니의 사명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는 나의 교회와 나의 성자께 대한 참 신앙의 지식을 쌓아야 하며, 보호하고, 키우고, 간직해야 한다. 너희가 만일 신앙을 타협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어둠 속의 교회는 신앙을 잃은 교회, 믿음을 저버린 교회이며, 그곳에서 또 다시 나의 성자를 십자가에 못박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로마는 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너희들의 교황 바오로 6세는 큰 위험 속에 있다. 우리는 그의 안녕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와 보속과 회생을 간청한다. 하느님께서 너희 교황을 지상에 있게 할수 있는 천칭을 지상에 놓아두셨으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빛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는 모두 문들을 두드리며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지금 ‘빛을 나르는 자들’ 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딸아, 그들은 ‘빛의 보유자들’ 이다.

“아, 나의 자녀를아, 나는 너희 나라와 전 세계에 널리 만연하고 있는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천구를 듣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질병을 인류에게서 거두어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아, 나는 오늘 저녁 너희들에게 응대 한 뉴스-스를 가지고 왔다. 하느님과 나의 성자께서는 나에게 끝없는 믿음의 믿음을 주셨다: 만일 인간이 사탄

은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너희들의 하느님은 편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분은 어떤 아이들에게 편을 내리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분들을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 주고 싶은 심정이다. 부모들의 죄 과이 지대하신 분이시며, 지금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계신다. 그 아, 나는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를 지적해서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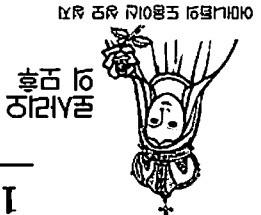
“천국에 있는 우리는 마약이 널리 만연 되어 있는 것, 또 화산들이 폭발하는 것을 모두를 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이 일어나기로 되어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 AIDS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부짓는 소리를 듣고 있다. 나의 딸아, 인체를 해 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주어야: 이것은 어떤 아이들이 어둠을 용내내며 자신들의 영혼들을 파괴해 가고 있는 무섭도록 외설스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지상에 공개하시는 것이다. 나의 딸

성모님: “나의 딸아, 그리고 세상의 나의 자녀를아, 포사리오의 성모 분사자들이 우리의 바램에 응답 하며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른다. 오늘 저녁 찾아 기도가 끝나기 전에 너는 내가 한 이 말의 뜻을 함께 될 것이다, 나의 딸아,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저녁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이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이 다. 내가 몇 년 전에 너희들을 일깨워 주려고 애썼듯이, 지금 사탄은 지상에서 나의 성자의 교회에 를 어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매체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고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은 이제 부모들에게 달려있다.

이, 그 분이 영고 계사 카공이 매우 아름답다. 흰색의 카공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마라에서 발까지 긴 양도를 걸치고 계 시다. 지금은 너는 성모님의 힘을 보고 있다. 나에게서 성모님 밑에서 신비스러운 장미 꽃잎들이 앞으로 흘러 나옴으로써 우리를 북으로 모는 것이 보인다: 특별한 영웅임을 입증한다. 이, 성모님께서 매우 아름다운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 다... 지금 성모님들이 이 모든 것을 들을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

베르니카... 아, 지금 성모님 주면 나뭇잎에 푸른빛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오신다는 표정이다. 아, 붉은 빛이 보인다... 온파한이 동근 모양의 빛이 저 하늘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온파한이 동근 빛 위에 성모님께서 서 계실 것 이 보인다. 20년전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아, 그 동근(綠)은 지구를 상징하는 것 같다. 지금은 성모님께서 추위를 떨쳐 보신다. 그리고 매우 기쁘게 내려오셨다. 지금 그 붉은 빛이 나타나고 그 동근(綠)은 우리의 영혼으로 기쁘고 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성모님 바를 뒤 따르며 나뭇잎까지 까지 오셨다. 추위를 떨쳐 보신다.

하느님의 약속! 만일... 인간이 회개한다면, AIDS와 질병을...



1990년 6월 18일 월야포사리오 성모님현 20주년 기념

에게 넘어간 그의 생활을 회개한다면, 너희들은 AIDS의 치료법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적으나마 시간을 허락하셨다. 따라서 지금은 너희들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보속을 해야 할 때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너희 모두를 주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될 때까지, 너희를 이끌어줄 것이다. 사탄과의 싸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아, 우리들의 자비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두어라 나의 딸아, 지옥과 연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있다. 나의 성자의 교회의 사제들조차도 이 핵심적인 지식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자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조롱하기도 한다. 나의 딸아, 그리고 세상의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믿어다오, 내가 연옥과 지옥을 다 경험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말한다.: 제발 길을 찾지 못한 너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보속을 해다오.

인간은 聖神에 의해서 창조된다

“참으로 천국은 사랑으로 얻어지는 곳이다. 하느님은 너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모든 인류가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의 딸아, 이 사실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인간이 성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사제들에게도 말한다: 너희가 신앙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훈계나 가르침을 따라 가느냐.

“나의 성자의 교회를 인간 중심의 장소로 만들지 말아라. 영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연옥이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며 또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장소 그리고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는 곳으로 교회를 계획하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적(敵)들은 너희 가운데 혼란을 들여놓고 오류를 믿게 만들지만하면, 너희를 완전히 정복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들의 지도를 잘 따라다오,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사람들이 죄를 누우치고 동성애와 같은 짓을 버린다면, 나는 AIDS의 치료법을 내려 주겠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모든 인류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지붕위에서 외쳐라: 태어 나지도 않은 것들의 살해(낙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요기 33장 4절을 읽어 보아라: 나는 하느님의 뜻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너희 가운데서 이 지식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인류는 성자와 성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지금 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성삼위(聖三位)의 존재마저도 부인(否認)해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나라와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내려질 것이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같이 고통에 고통만 배가(倍加)되며, 결국 지상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 나라 미국에 큰 위험이 다가와 있다.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 다리를 가진 악마(고르바초프)를 너희 나라에 들여 놓았구나. 무신론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의 가슴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

“자, 나의 딸아, 지금 앞으로 나아가자, 나의 성자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내가 환
은 사람들이 지금 그 끝을 모욕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지 않아 인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나는 긴 세월 전 세계를 찾아 다니며, 나의 성자를 사랑하고 문경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666이 인류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는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언이 도착해서 회행할 것이고, 낙태는 계속될 것이다. 결국 인류는 그 댓가를

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되었으며, 더 이상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의 딸아, 나는 네가 이 땅에 축제를 받고 있
“또한 나의 성자께서는 영원된 자들의 기도가 몹시 부족한 것을 관 랐고 계신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다,
내가 부탁한다, 수도원에는 7, V 라디오를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로 돌아와야 한
나의 자녀들아, 우리들의 수도자들은 규율속에 있어야 한다. 수도원 안으로 계속을 들여 놓지 않아라,
것이다. 우리들에게 영원된 자들에게 근대주의 생활 방식이 스며들어서는 않된다.

도복을 벗어 버리고 있으며, 더 이상 근결한 자녀들이 아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성모님...” 나의 딸아, 우리는 모든 수도회가 세속에 오염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들은 수

수도원에는 TV 나 라디오를 두어서는 안된다

베르니카... 성모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저기 있는 저 사람이 수녀 아니냐? 그런데 수도복을 입지 않았구나.

황금색이고 성모님 옆으로 흰색으로 빛나고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추위를 틀러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건넌편으로 가시며 복추를 들고, 이렇게, 성호를 그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추위기도 영은
곧 계산 것 같아 느껴진다.

계산 그 끝을 모든 사람들이 복수있으면 좋으련만... 매우 아름다우시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우시디. 마치 어머니가 또 한
지금, 성모님께서 원편으로 옮겨가신다. 우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다. 너무 바로 왼쪽이다. 아, 매우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베르니카... “네, 제가 이 말을 전해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게 보고 계신다.

의 성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 나의 성자께서는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우 주의
성모님... “자 나의 딸아, 인류에게 하늘의 메세지를 하나 더 내려주겠다. 그리고 쉬도록 하여라, 나

베르니카... 어머니, 제가 이 말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문 겁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나의 딸아, 그래”

빛나는 그 문(門)을 들어올 때, 이 판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고통을 다 거두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딸아, 네가 황금빛으로
나는 관 랐고 있다. 그리고 나의 딸, 베르니카여, 나는 너에게서 십자가 하나를 털어주겠다. 하지만 네
“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인류에게 천국의 메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월들을 싸워 온 것을

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그 곳에 있는 몇 사람이 네가 건너와 주기를 바라며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 나의 딸아, 그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나서 네가 돌아오면, 나의 성자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베로니카... 자... 아, 저 나무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들을 지나서 오고 계신다! 내기 성모님과 그 공(球)이 미끌어지듯 떠가는 것을 보다가 미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분은 매우 아름다우시다! 예수님은 붉은 벨벳 까운을 입고 계시며, 가장 자리는 금실(金絲)로 수를 놓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분의 샌달을 보고 있다. 갈색 샌달이다. 가죽 끈으로 묶은 가장 자리는 얇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 보신다. 예수님 주변에 바람이 흐르는 것 같다. 그 분 머리가 앞, 뒤로 휘날리고 있다. 성모님께서 지금 그 분에게 어떤 표현을 하신다. 그리고 그녀는 환자들 무리들을 가리키신다,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분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성모님... “나의 딸아, 오늘 저녁, 나의 성자께서는, 너와 함께 움직이실 것이다.”

베로니카.. 이!

네, 네, 즉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신다: 그분이 나를 따라서 병자(病者)들 무리속으로 오고 계신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날 것을 뜻한다

(멈춤)

베로니카.... 지금 예수님께서 성모님 옆에 있는 키가 큰 나무 바로 건너에서 계신다. 다소 멀리 계신다. 나는 내가 환자들 무리 옆에 있을때 두 세번 뒤를 돌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매우 인내롭게 그곳에서 계심을 알았다. 그 분은 내 뒤에서 나를 따라 오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며 성호를 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건너 가신다.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다, -그 분은 나무 끝 가장 자리 넘어 훨씬 멀리까지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 그리고 오른쪽 건너 편을 몸짓으로 가르키신다. 지도가 보인다. 하늘에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미국의 동부해안 같다. 플로리다가 보인다: 롱-아일랜드까지도 볼수 있다. 그런데, 매우 웅장한 어떤 것이 보인다. 매우 큰 붉은 꿈 같다. 꿈의 사진에서 본 것과 똑 같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쿠바가 있다!

“성모님 그 꿈이 쿠바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모님께서 돌아오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저 편으로 움직이시고, 성모님은 병자들 무리를 계속 주시하신다.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 뒷쪽을 가르키신다. 그곳에서 나는 지구 다른 편에 있는 나라를 보고있다.

그 나라들과 지역들이 나에게 생소하다. U.S.S.R.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사람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리고 그 분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신다. 그것은 내가 잘 듣고 따라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온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차 있으며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구나. 사탄은 너희들 세대에 악을 주입(注入)하였으며, 지금 사탄에게 바치는 예식들이 너희 나라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너희 자녀들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사탄 추종자들과 실제로 부딪쳐 본적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자들이 성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모독하고 더럽히는지, 또 그 자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은 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지 못했으니 그럴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라!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너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정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

간에도 인간을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제발 더 늦기전에 내 말을 듣고 따라와 나오.!

“미국에 또 다른 징벌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딸아, 보아라. 그리고 네가 보고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 보아라”

소련의 잠수함들이 쿠바로 가고 있다.

베로니카... 아. 글썄, 저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많은 배들을 보고 있다. 아, 그것들은 잠수함들이다. 지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나에게는 지금 지도가 보인다: 성모님께서 미국의 지도를 가르키신다. 내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가 보인다. 그들이 롱-아일랜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그들은 마치 무슨 경고를 받은 것처럼 일제히 물속으로 잠수하고 있다. 물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다 속을 볼수 있게 해 주신다. 지금 그들이 쿠바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나는 그곳이 쿠바인 것을 알수있다. 그들이 쿠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수 없다. 소련이 그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 “그렇다, 나의 딸아, 네가 본것을 잘 말해주었다. 모두가 알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두 다리를 가진 악마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여라.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두 다리를 가진 악마, -우리는 그 자를 이렇게 부른다.-미국에 대적할 큰 계획을 가지고 너희 나라에 들어 왔다. 너희들의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일러 주어서 속지 않게 하여라.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은 많은 기도가 전 세계에서 바쳐지고 있다. 그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지 않은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은 무장 해제되고 우리는 공격당할 것이다.

베로니카... 아! 아! 무섭다! 나는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매우 무섭다! 그들이 총을 쏘고 있다! 아. 저런.

예수님... “나의 딸아, 세상 자녀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벌(罰)을 받게될 것이고, 우리는 물러나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너희들은 우리가 마치 벌(罰)이나 내리는 하느님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가는 그 속을 내려다 보고 계신다. 인간들 스스로가 육신 사정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있으며, 자신들의 영혼은 지옥이나 연옥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베로니카가 지옥을 다녀오다.

베로니카... 아. 저런! 우리는 구멍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 가고있다. 땅속으로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나는 지금 아랫 쪽을 내려다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래쪽을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몹시 뜨거운 열기(熱氣) 때문에 아랫쪽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보아야 한다.

아. 저런, 저것들은 마귀들이 아닌가, 마치 동굴의 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께서 이곳이 지옥의 첫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영혼들의 수(數)가 수천 명은 되는 것 같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들이 비명을 토(吐) 하듯이 울부짖고 있다. 그들은 마치 타다남은 솟덩이 같다! 그들의 육신은

온 사방으로 떠다니며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치 석탄이 불속에서 타듯 그렇게 육신(肉身)이 타고 있다!

“아,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아, 아, 무섭다!

예수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너희들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칠 것이다. 제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바쳐다오, 물론 나의 자녀들아, 불행하게도 지옥은 영원하다.”

베로니카...네

예수님-“자, 나의 딸아, 나의 어머니께서는 AIDS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낙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전 세계의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이 회개하면 인류는 치료법을 받게 될 것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임종시에 너희는 살인자로서 선고를 받을 것이다.! 모든 영혼들은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신 것이다.

목주의 기도를 더 많이 바쳐라

“나의 자녀들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 한번 더 말해 주어라, 그들을 기도로 무너 뜨려야 한다. 기도를 많이 바쳐야 한다. 내가 거듭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목주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부모들아, 제발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켜라!

베로니카...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욥기 33장 4절을 다시 읽기를 하느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다.

예수님... “반복하여라, 나의 딸아”

베로니카... “네, 나는 전능하신 자이다. 나는 전능하신 자이다.

예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하느님의 콧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

베로니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창조물을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이 극악한 행위(낙태)를 묵인한 자들 때문에 인류가 받아야 할 보속이 매우 클 것입니다!

사제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고, 한 국가의 주민이 되어가고 있다.

예수님... “나의 딸 베로니카야, 나의 어머니께서 몇 년동안 너희 나라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말한다. 우리는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부탁한다. 그들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그 지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지상의 나의 교회가 지금 타락과 혼란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바른 길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들이 하느님이 안계신 교회를 세우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제발 기도를 많이 하여라, 인류에게는 또 다른 큰 징벌이 닥칠 것이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막아 오셨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벌(罰)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 징벌로 많은 영혼들이

이이다. 그리고 매 수백 번 이상이다.

사실이란 참으로 매우 훌륭한 느낌이다. 우리를 의식하며 행동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

다우이다. 흰 커튼을 걷고 계시는데 물이 들끓는다: 이것이 빛을 갠다.

을. 성모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이 성지를 떠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무셨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려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중 주변으로 흘러 내려 내린다. 아! 성모님께 그것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

나에게는 일복만 보는데, 마치 우리 조카를 같다. 믿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은 우리 조카들이 빛줄기처럼

리위를 지나서 뛰어가고 있다.

르겠다. 그러나 공중이 매우 신비스러우며 공중이 일어나고 있음에 놀랐다. 아직도 그 빛줄기들이 그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

가 우리를 위하여 머리로 지나가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머리로 지나가고 있다. 나는 성모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환자를 우리를 위하여 부르십니다. 아, 저런! 그분이 손을 이렇게 향하십니다. 이렇게. 손에서 흐르는 빛줄기

를. 몸무게의 절반이 성모님 머리 주위에 있다. 전에는 성모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십니다.

를 내기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머리 주위에 돌아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자은 성모님께서 그 공위로 돌아가셔서,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지금 그녀의 머리 주위로 공중... 빛들이 나오고 있다. 빛이

아. 성모님 주변이 매우 밝게 빛난다. 믿을 수 없게 밝아진다. 믿을 수 없게 밝아진다. 내 목이 얼었을 것이다. 너무 밝다! 그리고

베르니카... 네 감사합니다."

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 떠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는 내가 내려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성모님... "너는 오늘 저녁 너희 우리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아.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리꾼들입니다. 나는 느낄 수 있는데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는다.

베르니카... 지금 성모님은 예수님 곁으로 가서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이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나우임을 추측하는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를편으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서 복자를 깨내 드시며 신자번호를 그으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지금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보며 기쁨을 띠고

...아마 높이가 4~5피트는 될 것이다. 무분개서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그분의 머리

[말씀]

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를 떠날 것이다. 그분이 저 건너편, 왼쪽으로 가서 병자들을 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게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쪽에 누군가 그 분이 치유시켜줄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분

베르니카...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레"

베르니카... 왼쪽으로 가아하나요?"

예수님... "그레"

베르니카... "네, 돌아갈까요?"

그의 시간이 끝났네. 하느님 앞에 섰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들이 어느 한 축음의 공력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세상의 쾌락에 젖어 들었다. 어느 인간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

연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로사리오
의 모후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성모 성지

1990년 10월 2일 성녀 테레사 및 수호천사 축일 전야

베로니카 아침 10시 12분 성모님은 매우 밝은 빛에 에워싸인 모습으로 베로니카 침실에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마치 섬세한 실크로 짠 옷 같아 보였으며 성모님의 발을 볼 수 없을 만큼 길었고, 소매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허리에 푸른색 천으로 띠를 두르고 계셨다. 바람에 물결치듯 여유롭고 험거운 차림새이다.

성모님의 머리는 흰색 천으로 가리워졌으며 그 천은 어깨까지 내려왔고, 그 분의 옷 재질과 잘 어울렸다. 살짝 노출된 머리 색깔은 밝은 갈색이었다. 성모님의 지극히 정숙한 옷차림이 베로니카의 눈길을 끌었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기적 사진(‘하늘에 나타나신 성모님’ 사진)에서 보았던 그 분의 옷차림과 매우 흡사하였다.

성모님: “나의 딸아, 너는 나에게서 들은대로 써야 한다. 너는 오늘 저녁 성지(聖地)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해주는 이 메시지를 서둘러서 세상에 전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로서 또 세상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제발 하느님을 거슬러 범한 죄를 회개 하여라—육신의 죄 그리고 이성을 갖고 범한 죄 모두를.”

인류 역사 이래로 결코 보지못한 큰 전쟁이 갑자기 발발할 것이며 이 지상에서 국가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더 늦기전에 제발 귀를 기울여다오. 너희 모두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평화의 수호자로서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 너희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살해한 죄(낙태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생명의 책(성경)에 쓰여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닥칠 갑작스런 재앙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속죄 하여라! 나는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나의 자녀들아, 제발 나를 위로해 다오!”



로사리오
의 모후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성모 성지

1991년 10월 3일 아기에수의 테레사 성녀 축일 전야

늦 12시 베로니카는 거실 소파에 기대서 쉬고 있었다. 오랜 세월 그녀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테레사 성녀가 그녀 앞에 발현하였다. 그 젊은 프랑스의 깔멜 수도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1925년 성인(聖人)으로 선포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오늘을 축일로 지내고 있다. 그 분은 베로니카에게 얼굴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젊고 생기 발랄해 보였지만, 심각한 표정이셨다.

“항상 공경의 예를 바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영광이 있어지어다!

지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죄를 뉘우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청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시다.

영광과 공경을 성삼위(聖三位)께 드리세요, 서두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는 없을거예요.

-리지웨의 테레사-

있다. 성삼위(聖三位)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 세상은 **혜성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나의 딸아, 나는 네가 몹시 놀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주의(主義)로 오염되어 있다. 공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人本主義). 이 모두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갖가지 형태들일 뿐이다. 하느님께서 요구하셨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의 하수인들이 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이 되고자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있다.

〈의인(義人)들의 가정에는 TV가 있어서는 않된다〉

“부모들아, 너희들 가정에서 이 지옥의 기계를 없애야 한다. 이 기계가 너희 자녀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긴 세월 너희들에 경고를 하였다. 적어도 너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감시 조정해야한다. 이 기계를 창안해 낸 것은 사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집안에 있어야할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권에 접어드는 혜성〉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전 세계적으로 철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하느님 권좌 가까이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남을 만큼 매우 거대한 공(球)이 있으며 이 혜성은 지구의 궤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대기권 가까이에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만, 인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 혜성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럼, 인류는 타락의 길을 재촉하며 스스로를 사탄에게 넘겨 버렸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 가고있는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야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될 것이다.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을것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것은 추행이며 그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상의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들을 인도하여라. 지상에 풀려나와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은 분노에 가득한 루치펠과 격렬한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다.**

“나의 딸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하는지 네가 묻는구나. 슬프지만,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성자를 위해서 이 말을 해야겠다: 우리는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끌기위해서 할 수있는 방법들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인간들은 교만과 육신의 욕망 그리고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할 길을 선택하였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더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베로니카... 지금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다. 성모님께서 울고 계신다.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분이 울고 계신다.

“성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성모님: “나의 딸아, 나의 눈물이 너희들 모두 위에 흘러내린다. 내가 하느님 대전에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 혜성은 머지 않아 너희들에게 들이닥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구원 받을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구원될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사랑 가득한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또 평화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의 성자께 돌아와서 다가올 날들에 용기를 얻을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영혼들이 보속의 공(해성)으로 죽을 것이다.

“나의 딸아, 이 말이 너희들에게 몹시 충격을 준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성자의 이 메시지는 전 세계로 서둘러서 전파 되어야 한다. 매우 시급하다.

베로니카.... 지금 성모님께서 가까운 안에서 매우 아름다운 십자기를 꺼내신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기를 내미시며, 성호를 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피난처인 성모 성심〉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다. 나의 성심은 너희들 모두를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들 대부분을 구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원 받을 사람들이 소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구나.”

베로니카....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성호를 그으신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입술에 갖다 대신다. 잘 듣고 따라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

종말은 생각처럼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배교가 들어왔다.
날짜는 헤일수 있고 시간이 없다.
인간은 그의 몫을 내 던지고 영혼을 불태워없앨
석탄을 모으는 구나.
일하고 기도하며
서둘러서 빛속에서
내려주신
이 일을 해나가자,
온통 어둠으로 뒤 덮히게 될
그 슬픔의 시간까지.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한번 더 부탁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내려준 시적(詩的) 메시지를 한번 더 반복하여라.

원고:

근심으로 참백한 사랑하는 교황은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애를 쓰신다.
목장은 풍요롭지만, 양들이 메마른 것은
영혼들이 죄라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 나라 해변에서 힘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지상의 열은 여울에 어두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마음 모아 진실히 간청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황폐의 슬픈 운명을 피하자
 사랑이신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의 엄한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애원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생명의 성신을 애써 지워 버리려는
 너무도 많은 영혼들의 경솔한 포기로
 그분의 성심이 찢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 탐욕, 탐재, 허영이라는 인간의 칼은 심장을 찌르고
 이 모두는 죄가 광기(狂氣)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담대한 소수의 영혼들에게 모든 영혼들의
 구원의 짐을 지우게 할 뿐.
 온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전디고 싸우는 이들,
 너희는 인생 여정의 끝날에 교황 바오로를 만나리라.

“자, 나의 딸아, 물러나 앉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준 것을 되새겨 보아라. 지금 이것을 전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잘 들어라.

베로니카.... “네... 아니요.... 네... 경악을 금치못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말이 분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 보고 계신다. 성모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계신다. 지금 나는 성모님을 더욱 가까이서 뵈울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해 하신다. 나는 그분의 느낌을 알 수 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내내 울고만 계셨다. 성모님은 여전히... 웃고는 계시지만... 슬퍼 보이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성자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에 더 할 말은 없다. 나는 하느님 대전에서 너희들의 원의를 끊임없이 간청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벌써 보속의 공(혜성)을 받았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하느님의 손 길을 언제까지 막아설 수 있을지 알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보속의 공이 지상을 내려칠 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베로니카.... 나는... 거대한 둥근 물체(球)를 보고있다. [베로니카의 목소리가 매우 우울하다] 그것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 그것이 나무들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매우 거대하다. 그 물체 주변이 온통 연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주위를 빙 둘러서 불길이 일고있다. 너무 크다! 마치 바위, 아니 큰 산(山)이 불에 에워싸여 있는 것 같다. 그 불덩어리가 우리위에 떨어지고 있다. 아! 아, 안돼!!

지금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다. 하늘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다. 주변이 온통 불에 타고 있다. 너무 거대하다! 지금 성모님께서 앞으로 오신다. 혼자 계신다. 예수님을 뵈울수 없다. 성모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무들 위에 계신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술에 대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우리가 너희들을 놀라게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서둘러서 하느님께 죄를 보속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매우 무거운 보속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은 필요하다.

나의 딸아, 나는 이 범죄들을 하나 하나 나열해가며 몇 시간이고 계속 말을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세월이 흘러도 죄악들은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지시해주신 그 길을 걷지 않았다. 따라서 때가되면,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에, 그분의 뜻으로, 인류 위에 정화의 공(球)을 보내실 것이다. 나의 딸아, 나는 그 공 가까이 있는 그분의 손길을 치워 낼 수가 없구나.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마치 빗방울들이 떨어지듯, 눈송이들이 지상에 떨어지듯, 그렇게 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불쌍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지옥이 영혼들로 넘치고 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하다.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괴물같은 기계...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희생시키고...>

“어머니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한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잘 돌아 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죄가 바로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임신되는 그 순간, 성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괴물같은 기계를 만들어 내는 짓을 그만 두어라!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다. 그것들은 기계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탄의 짓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살해하는 행위는 하느님 보시기에 살인이다!

“나의 딸아, 네가 이 말을 듣고 병을 얻었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의지하고 있다. 마지막 경고들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인류에게 내려지고 있다. 나의 딸아, 내가 오늘 저녁 여기있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신다. 그리고 손으로 가르키신다. 이렇게, 그리고 저 나무들 오른편에 테레사 성녀가 있다! 아 테레사다! 성 테레사, 아, 그녀가 웃고 있다. 그녀는 나를 잘 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테레사 성녀.... “자매님, 그 시적(詩的)메세지를 전 세계에 전하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읽어야 할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구세주의 십자인호나, 사탄의 뿔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나의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상에 괴물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동성애, 가증스러운 짓)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느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실 때까지 자비를 베풀실 것입니다. 소위 동성애라는 그 추잡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조차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도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생들조차도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몸을 취해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바로 지옥의

사자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준성사를 착용시켜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르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지상 사람들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책임이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생활을 감시해야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도피자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생활을 복구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 타락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자녀들이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베로니카.... 지금 테레사가 하늘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녀의 수도복을 더 잘 볼 수가 있다. 바람이 나무 뒤 편에 불고 있다. 그녀가 웃고 있다, 여전이 웃고 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늘 오른 편을 가르킨다. 그곳에 성모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 분께서 손을 내미신다... 나는 그분 손가락을 느낄수 있다. 매우 부드럽다. 그리고 아름답다. 마치 전기(電氣)가 흐르는 것 같다. 글썄 이렇게 밖에는 설명을 하지 못하겠다. 그분의 손가락들에서 흘러 나와 우리들을 향해서 방사(放射)되고 있다. 너 무나 아름답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시며 하늘을 가르키신다. 테레사 성녀를 보느라고 미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계신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테레사 가운데 서 계신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이신다. 그러나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성모님께 말씀하고 계신다, 아, 알았다. 하늘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우리는 이 성지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예수님: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지를 우리들의 거처로 만들었다. 따라서 위로를 찾아서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와 나는 큰 재앙때 조차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나의 딸아, 물러 앉아서 사진들을 찍어라. 세 장이 찍힐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두장은 잘 살펴 보아라.”

1992年 6月 18日 로사리오 성모 발현(22차) 기념일



로사리오의 모후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속임수를쓰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탄의 부하들: 엘친, 고르바초프

어머니의 도움이신 성모 성지

베로니카 - 우리들의 왼쪽 위, 나무들 바로 위에서 매우 아름다운 빛의 성광이 있다. 온통 무지개 빛깔로 빛나고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매우 아름답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다르다. 색조(色調)가 너무 환상적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무지개 안에서 성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는 것을 볼 수있다.

아, 성모님의 웃음이 매우 아름답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본적이 없다. 나는 성모님을 오랜 세월 뵈고 지냈지만, 이렇

게 머리 카락을 볼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짙은 갈색이다...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다. 짙은 갈색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매우 빛나는 흰 기운을 입고 계시며, 손가락까지 덮고 있다: 손가락들이 거의 안 보인다. 까운은 매우 길다. 발까지 덮고 있는 긴 까운이며, 까운위에는 케이프를 걸치고 계신다. 오늘 저녁은 성모님께서 황금색의 슬리퍼를 신고 계신다. 슬리퍼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고 샌달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성모님께서 웃고 계신다. 아, 아 머리에는 훌륭한 크라운을 쓰고 계신다! 지금 주위에 온통 장미 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무지개 주변에서 떨어진 장미 꽃들이다. 성모님이 머리에 쓰신 아름다운 크라운은 금색이고 머리 한 가운데 딱 바로 씌워져 있다. 그 분의 머리를 망뜨로 가리고 계신데, 그 위에 똑바로 놓여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두 분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한 분은 성모님 오른 편에, 우리 편에서 보면 왼 쪽으로 건너워서 서 있고, 또 한 분은 그 분 왼편에(우리들의 오른 쪽) 서 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늘 높은 곳을 가리키신다. 그리고 그 곳에는 몸집이 매우 큰 분이 서 있다! 사람 모습이지만, 몸집을 보면서 그분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겠다. 그 분은 천사이시다. 굉장히 크다. 온 하늘을 덮고 있다. 미카엘이다! 아! 아, 그분이 고개를 고덕이신다. 오, 그렇다!

지금 그 분이 아래 쪽에 계신 성모님을 가리키신다. 그리고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시는데 주변에서 스치는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다: 주위가 온통 고요하다.

지금 오른 쪽에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몸집이 각기 다르다. 그리고 지금 그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나는 계단이 하늘 속으로 높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것같은 모습이다. 그 계단은 층층이 빛나고 있다. 재질(材質)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빛으로 만들어진 계단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견고해 보인다. 천사들이 지금 이 계단을 오르다가 멈추어 서서 성모님을 주시(注視)한다: 그들은 그 곳에서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성모님을 수호하는 이러한 모습의 천사들을 본적이 없다. 경이롭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고 계신다. 슬퍼 보이신다, 그러나 웃으려고 애쓰신다. 그리고 지금 그 분께서는 받침대 밖으로 걸음을 옮기신다. 까운 때문에 미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곳에서 벗어나 아래로 내려 오신다. 우리들의 왼쪽 건너편으로, 저 키가 큰 나무 너머 오른 쪽으로, 그녀의 성상(聖像) 오른 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나무 위에서 멈춰 서시며 아래를 내려다 보신다. 하늘에서도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성모님의 케이프가 오른 쪽, 왼쪽으로 휘날린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신다. 그러나 그 모습에 슬픔이 느껴진다.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나는 무거운 슬픔이 드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신다. 저 나무들 꼭대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첫째 손가락을, 이렇게, 입술에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성모님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오늘 저녁, 슬픔 가득한, 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베로니카야, 나는 너희 나라와 이 세상에 무서운 사건들이 다가 오고 있다고 일깨워 주려고 너를 이곳에 불러내었다.

내가 과거에 너희들 모두에게 말해준대로 너희들은 너희 나라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우 많이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매우 큰 재앙이되는 전쟁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 전쟁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온 인류에게 이 말을 전해다오: 사람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자신의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슬책이다>

"내가 과거에 너희들 모두에게 해주었던 충고를 지금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것은 전술적 속임수이다.

일찌기 위대하고 빛났던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의 미국이며, 그 빛났던 미국이 이제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너희 나라에서 도덕은 땅으로 추락했다. 어둠이 온통 인류를 뒤덮고 있다.

“부모들아, 내가 지금의 이 날들을 이야기하며 너희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얼마나 자주 충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한 자들중에서 많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 하지도 않는 무신론의 세상속으로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있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의 딸아, 너희 나라 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를 바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슬픔을 주고있다.

엘친: 죄의 자식

“지금 너희 나라에 와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죄의 자식이다! 지난 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번 말해주었지만,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하겠다. 너희들의 맞상대인 그 자가 지금 너희 나라에 와 있다. 그 자 역시 그의 전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자식이다!

“이러한 충고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날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리고 많은 자들이 미국을 속이려고 술책을 썼다. 공산주의라는 야망을 포기하고, 너희처럼 자유국가가 된것처럼 위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나라를 삼키려고 수작을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분명히 말한다. 러시아에는 자유가 없다. 모든것이 속임수이다.

“그들은 세상 다른 나라에서 원조와 돈을 구하고 있다. 레닌의 시대에도, 또 스탈린 시대에도 그랬건만, 도대체 너희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세상 자유 국가들에게 주어야 하고, 또 너희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주려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러시아는 자유 국가가 아니다. 너희들을 속이려고 걸꾸미는 짓을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레닌과 스탈린은 같은 전술을 썼다. 너희는 과거의 잘못속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

베로니카.... 지금 성모님께서 울고 계신다. 위를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레닌, 스탈린은 지옥에 있다>

성모님 - “나의 자녀들아, 나의 눈물이 너희들 위에 흘러내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들을 매듭짓겠다. 레닌과 스탈린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신(神)인 어둠의 왕자, 사탄에게 던져 졌다!

“나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기에 나의 성심은 격통(激痛)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납득시키려고 한다. 안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러한 주제로는 이 말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사람, 이 두 사람은 신념

이 같고, 색깔도 같으며, 영적 상태도 같은 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영적으로 결핍된 자들이다. 온갖 거짓의 아버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자녀들아....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엘친, 고르바초프....

“나의 자녀들아, 그것은 오래 전에 세워놓은 똑같은 음모이다,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너희 나라 지도자들은 눈이 멀었다. 나는 미합중국의 나의 자녀들, 즉, 너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 아래에서 나누어 질 수 없었던 하나의 국가인 미합중국은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강한 군비(軍費)를....〉

“그 자들의 계획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더 많은 군수물자들을 비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돈을 구한 후에, 너희들을 정복하는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그들은 군수물자들을 처분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비축해 놓았다. 그들은 조상들이 세워 놓았던 목표를 계승해 나가고 있다.

“나의 딸아, 네가 이 말들에 몹시 슬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딸아, 이 말이 너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 더 경고하겠다. 앞으로 너희들의 가정을 매우 주의깊게 보호해야 한다. 나의 딸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성자께서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딸아, 너희들이 받은 모든 고통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책, 성경을 읽어 보아라.

나의 성자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고통을 받는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나의 딸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베로니카 - 지금 성모님께서 하늘 위를 가리키신다. 무언가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니..... 폭탄 같다. 아니, 아니. 폭탄이 아니다. 잠수함이다.

그리고 지금 성모님께서 오신다. 그 분은 나무 옆 오른쪽으로 건너 가셨다가 이 쪽으로 오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으로 하늘을 가르키시며 말씀하신다:

성모님 - “나의 딸아, 이 광경을 보아라, 너희 나라는 잠수함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공격 계획을 세워놓았다.

나의 딸아, 그들은 너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괴를 준비하고 있다.

〈엘친과 고르바초프: 사탄의 부하들〉

“너희 나라와 세상의 자유국가들에서 철야의 기도가 끊임없이 바쳐져야 한다. 우리가 자유 국가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이 나라들이 사탄의 협조자들에게 행복하고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복수(復數)로 ‘협조자들’ 이라고 말한다, 엘친과 고르바초프”.

베로니카 - 지금 성모님께서 가슴에 손을 대고 계시는데 몹시 당황스러워 하신다. 나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당황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분은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신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성모님-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쉬운 임무를 맡기려고 너를 이곳에 오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나라에서 목주의 기도를 바치는 자들이 있는한, 우리는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체해서는 않된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쓰러질 것이다.!

“나의 딸아, 앉거라. 그리고 기다려라. 나의 성자께서 매우 시급한 문제로 너희들에게 충고하시길 원하신다.

베로니카 - 지금 성모님께서-우리들 쪽에서 불때-오른편으로 건너 가신다, 그분의 왼쪽이다. 그리고 지금 하늘 속 높이 오르 시어 저 멀리에 계신다. 나무들 때문에 나는 그 분을 잘 볼 수가 없다. 저 건너 우리들 오른편에 계신 것을 나무들 틈 사이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왼편을 가리키신다 아! 아, 저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속에서 앞으로 나오고 계신다.. 하늘을 가로 질러 매우 빠르게 움직이신다. 그리고 성모님을 건너서 옆으로 오셔서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지금 성모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잘 들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 밖으로 가신다. 성모님께서 지금 나무들과 하늘 사이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 숲 밖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붉은색의 케이프를 입고 계신다. 벨벳 천으로 만든것 같다. 벨벳 케이프에 베이지 색 까운을 입고 계신다. 그리고 베이지 색의 끈이 두 가닥으로 달려있는 샌달을 신고 계시는데, 차라리 맨발에 가깝다. 그 끈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나는 그 분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다. 긴 머리가 바람에 이쪽 저쪽으로 휘날리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웃으신다. 그리고 입술에 손을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예수님 - “나의 딸아 그리고 세상의 나의 자녀들아, 지난 날 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에서 목주의 기도가 계속 바쳐지고 있는한 우리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목주의 기도가 너희 나라와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 이 세상은 지금 인류에게 내려질 거대한 재앙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분명히 말한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구름 너머를 찾아나선 그 자들은 하늘속에서 원자(原子)를 찾았다. 일찍이 하느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것을 지금 그들이 지구를 파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우리들이 지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되돌릴 수 없다면, 때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알게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영혼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지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탄에게 한 명도 잃고 싶지 않다.

“나의 딸, 베로니카야, 너는 이 성지에서 찍은 기적(초자연적) 사진들을 많이 보았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진 안에는 내가 해야 할 말들이 담겨있다.

(악마들이 덮고 있는 성충권)

“내가 지난날 너에게 말했듯이, 사탄과 그 악마의 군대가 지상에 풀려 나와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지구를 에워싼 성충권을 완전히 뒤덮고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디쳐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병자(病者)들 무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자들이 지금은 심하게 아파하지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졌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상태가 몹시 안좋아서 매우 당황했읍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시며 잘 듣고 따라하라고 하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너희들이 ‘천국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방법을 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다. 걸음을 늦추지 말아라.

메세지를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 그들이 이 시대의 창조들을 알아야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악들을 누르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속과 징벌을 부르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재앙이 인류에게 닥치는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때때로 지극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뜻을 세우시고 실행하신다.

“그러나 나의 딸아, 지금 나는 자녀들의 영혼 타락의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 자녀들이 가정을 벗어나서 빛과 진리를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지금 너희 주변을 온통 악마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 문을 활짝 열고있다. 이 말은 그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칠 것을 요구한다. 텔레비전이라는 사탄이 만들어낸 사악한 도구(管)에서 범해지는 행위들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보지 못하게 해야한다.

적절한 조절 장치를 할 수 없으면 즉시 집에서 없애 버려라. 내가 부탁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살인’이라는 수단에 의지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나도 역시 너희 가운데 살았으며, 너희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잊지말아라. 따라서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나는 나의 성자와 함께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있다. 나의 딸아, 너희 나라처럼 상태가 이 지경이 된 나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항상 목주의 기도를 바쳐라)

“그러나 우리들은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들 가정에서 목주의 기도를 바치며, 그들의 형제들을 성삼위(聖三位)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흐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오리라는 큰 희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알려진 성신의 빛 속으로 그들을 대려 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한 나라의 도덕이 땅에 떨어질 경우, 그 나라는 이러 저러한 방법으로 파괴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 죄에 대한 벌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 세상과 너희들의 교회에서 끊임 없이 철야의 기도를 바쳐다오.”

“많은 사제들과, 목자들이 진리에서 멀어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지금 흰 양들 가운데 있는 검은

양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기도는 모든 악을 누를 수 있다. 너희 나라와 세상 다른 나라들에서 끊이지 않고 철야의 기도를 바쳐야한다, 지금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며 절망해서는 않된다, 나의 자녀들아, 꼼꼼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결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딸아, 네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실망할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오 나의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며
연옥 영혼을 돌 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돌보소서.

“자, 나의 딸아, 너희들은 모두 속죄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성자께서도...”

베로니카....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광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미처 없었다.
그러나 그 분들 모두 구름이 가득한 그 하늘 속으로 올라 가신다, 매우 아름다운 흰 구름이다, 이제는 그 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멀리에 뚝뚝 떠있는 구름만이 보일 뿐이다.”

-1992. 10. 6 로사리오 聖母 축일 전야-



로사리오
의 모후

어머니의 도움이신 성모 성지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는 폭군의 손에 넘어가려는 미국 :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있다.”

베로니카: 성모상 바로위 나무 오른쪽 끝 가지가 뻗어 있는 그 편 하늘에서 성모님께서 내려오신다. 아, 매우 아름다우시다! 우리들의 복되신 어머니의 아름다우심과 빛나는 광채를 말로서는 표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몹시 쇠약한 상태로 이곳에 왔는데, 벌써 힘이 솟구치는 느낌이 든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분은 주변을 돌아 보신다. 그리고 지금 십자 고상을 가리키신다.

지금 성모님께서 십자 고상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라고 말씀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치유와 개종(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육신의 치유 그리고 영혼의 치유. 지금 성모님께서 손을 펼쳐 보이신다. 나는 그 분을 매우 잘 볼 수 있다.

예전에 사람들은 '성모님 연세가 얼마나 되어 보이냐 또는 얼마나 어려 보이느냐고 나에게 묻곤 하였다. 정말 그 분은 어려 보이신다. 그러나 나는 그 분의 나이를 예측하지 못하겠다.

지금 성모님의 손 끝에서 빛이 나오며 내 왼 손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빛 줄기가 그 분의 왼 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우리들의 오른쪽에 있는 손...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여기있는 우리를 지나서, 그 빛은 밧줄을 쳐 놓은 그 안으로 가고있다. 병자(病者)들이 있는 곳이다. 성모님께서, '그렇다' 고, 고개를 끄덕이신다. 지금 성모님께서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신다.

성모님 - "통회의 기도, 주의기도 한번, 성모송 한번을 바쳐라, 그 후에, 나의 딸아, 다시 올려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베로니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오, 나의 천주여 우리 천주께 득죄하였음을 진심으로 통회하오니, 나의 모든 죄과를 고백하오니, 이는 천국을 잃음과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 함이며, 그 무엇보다도 지선하신 천주를 만유위에 사랑함을 인하하오니, 이제 일심으로 내 죄과를 통회하며, 마음을 정하며 보속을 행함과 생활의 개선함을 굳게 결심하오니, 바라건대 천주는 나를 도우소서, 아멘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해서 빌으소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해서 빌으소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해서 빌으소서.

성모님께서 웃으신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웃으실때,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느낌을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셔서 성모님을 뵈고 있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듯 무척 느긋한 기분이 든다. 성모님의 주변에 오로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오로라가 이 성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성모님은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입술에 손을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성모님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특히 나의 딸, 베로니카야,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심각한 메세지가 있어서 오늘 저녁 너를 이곳에 불러 내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내려치실 징벌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왔다.

두려워 말아라, 충성되고 진실되게 머무는 자들아, 너희는 이 벌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지상에서는 하늘의 벌(罰)을 불러내리는 더러운 행위들이 많이 범해지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나라의 지도자들이 길을 잃었다. 지금 그들에게는 죄가 생활화 되어있다.

"과거에 나는 성자께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형언할수 없는 슬픔을 견디며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 분은 또 다시 고통을 받고 계시며, 나는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신 그 분과 하나가 되고있다.

"그렇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인류는 또 다시 나의 성자를 못박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잊었으며, 그들은 길을 잃었다.

(성경을 공부 하여라)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묵시록의 장(章)은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지난 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준 충고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며 준비하였느냐? 너희들은 생명과 사랑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힘을 쏟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타서 파괴 되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거두어 질 것이다.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거듭 거듭 강조한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상기하며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사라진 이야기를 들어 알고있다. 너희들에게 닥칠 시련도 그것 못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너희가 과거에서 배우지를 않는구나. 너희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있다.

“하느님께서서는 희망을 갖고 주시해 오셨다. 그리고 그 분의 위대하신 지혜는 지금이 어느 시점이라고 확신하신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을 지상에서 거두어 들여야할 시기라고 생각하신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 라는 그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다. 성경을 읽거나 사제와 상담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스스로가 겸손하고 경건한 사제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다. 많은 자들이 높이 되려고 그들의 영혼을 팔았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종파(宗派)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신다. 매우 슬퍼하신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있는 케이프로 눈물을 훔치신다. 지금 나는 그 분이 평정을 찾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있다. 그 분에게는 힘든 시간이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 보신다.

(지난 메세지들 모두를 앞에 갖다 놓아라)

성모님 - “나의 딸아, 너는 지난 메세지들 모두를 앞에 갖다 놓아라. 이제 곧 네가 그것들을 지상에서 전파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한장도 버리지 말아라.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자녀들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나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채, 살아가고 있다.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죄가 생활의 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양을 따라가며 방향을 잃고 흩어지고 있다.

(교황을 제거하려고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Ⅱ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바쳐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 세상에서 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독재자를 들여 놓으려는 비밀 회의를 열고 있다. 그렇다, 나의 딸아, 너희들은 ‘독재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적 그리스도)

“너희들은 세상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철야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어두움이 지상에 있는 나의 성자의 교회를 덮어 가고있다. 너희 나라 또 세상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거침 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너희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곧 너희들 세상에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No 2, 나는 그 자를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서는 그를 ‘적 그리스도’ 로 표현해 놓았다.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 자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이되려고 그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나 썩은 것은 모두 떨어질

것이다. 너희 나라와 세상에서 빛을 지키려는 싸움이 어떻게 되어가든, 너희들은 반대 세력에 맞서서 충성과 진실의 기치의 깃발을 나르며 빛의 군사로서 전진해야 한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침투한 그 고통, AIDS라는 그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실제로 이것은 하느님과 나의 성자를 그들의 지도자로서 인류가 받아들일 수 밖에 달려있다.

(64년 이전에 출판한 성경을 찾아라)

“너희들은 모두 생명과 사랑의 책, 성경 복사본을 구해야 한다. 새 시대 조류에 맞춘 성경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오래된 성경을 서점에서 찾아보아라. 지금 많은 성경들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 맞추어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죄가 생활화되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저 높은 곳의 하늘을 열어 보일수만 있다면, 하늘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여줄수 있을 텐데... 참으로 천국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는 큰 고난의 시간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수 있을까?

(결코 준성사를 벗지 말아라)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준 갑옷... 그것은 나의 성자와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목에 걸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십자가, 베네딕도 메달, 스카플라를 목에 착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쉽게 벗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 이유가 있다.

“자 나의 딸아, 이번 주(週)에 내가 곤욕을 치룬 이야기(너를 보호해 주는 갑옷을 벗어 놓았을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베로니카... 제 이야기를 말입니까? 이걸 어쩌면 좋지...

성모님... 그래, 나의 딸아, 세상이 알게 해 주어라. 네가 이러한 소용돌이 속을 지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

베로니카... 글썸, 지난 월요일, 나는 나는 종합 검진을 받으려고 켈찰스 병원에 가야만 했다. 일곱가지 테스트를 받았다. 혈액검사, EKG...

그리고, 내가 도착 했을때, 병원 직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그 메달과 스카플라를 벗으세요”, “그 여자는 스카플라를 알고 있는것 같았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보호 갑옷을 벗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당신을 보호해 드릴 겁니다. 어서 벗어서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당신 백에 넣어 드리겠어요.” 그렇게 그녀는 스카플라와 메달들을 벗겨 내었다.

나는 검사(檢査)를 그만 두지않으면, 그녀와 논쟁을 해야하는 달갑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우 단호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검사를 계속해 나아갔다.

다 잘 되었다. 나는 한동안 병원에서 머물렀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러한 검사를 받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의 연속이지 않은가. 모든 검사가 다 끝났을때, 나는 몹시 배가 고팠고, 아더(남편)도 허기지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검해서 고속 도로변에 있는 맥도날드 식당을 향해서 갔다.

다행스럽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식사를 거의 끝낼 때까지는 일어날 일을 지연시켜 주셨다. 그러나,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은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커피를 끝냈을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뛰어와서 말을 하였다.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요? ” 그리고 그때 나는 가스 냄새를 맡았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모두가 뛰기 시작했고, 그들은 먼저 빌딩을 빠져나갔고, 나도 아더와 함께 백을 들고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이 파이프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내가 나중에 깨달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대형 크레인을 운전하던 이 사람들이 가스 파이프를 건드려서 냄새가 새 나왔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곳에서 성냥 불을 켜다면, (온 사방이 그 냄새로 가득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차를 타고 밖으로 빠져 나왔을 때 말했다. “아,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자가 나를 쓰러뜨려야겠다고 계산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당도하였다. 아, 그런가? 내 집에 도착해보니 애완견이 개 파자를 많이 먹은것과 여기 저기 마루위에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먹고 남은 작은 부스러기들이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집 개는 우유뼈 파자를 좋아한다. 파자색이 분홍 빛도는 갈색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이다. 그 개는 푸들종(種)이며 유난히 우유 뼈 파자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아더(남편)가 떨어뜨린 팝콘 부스러기들을 치우려고 마루를 쓸었다. 그때 갑자기 ‘이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는거야? 내가 먹고 있는게 무어지?’ 라고 내가 말했다. 처음에 나는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런데 글썽 내 입안에... 내 입안에 개 파자 큰 덩어리 2개가 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나는 개 비스킷을 먹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아, 아-그놈이 여전히 나를 쫓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성모님께서서는 내가 이런 고생을 하도록 허락 하셨고, 나는 비싼 댕가를 치우고 교훈을 얻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에서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심쩍어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남편이 집안으로 들어 왔을 때 내가 말했다. “그 놈들이 나를 질식 시키려고 했어”, 남편이 물었다. “그런데 그것이 뭐야?” 나는 “내 입안에 있던 개 비스킷 덩어리들이야!” 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것들이 입안에 있을 수 있는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것 같애”

그랬다. 나는 하루종일 온통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분도패, 스카플라를 지갑에서 꺼내어서 착용하였다. 다음 번에는 그들이 이 갑옷들을 내 코에 붙여 놓기만 해준다면 별상관 없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분도패, 스카플라, 십자가를 몸에서 벗는 일은 없다.

이제 여러분들도 성모님께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힌다는 것이 당황스럽지만, 성모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도 스카플라, 베네딕도 메달, 십자가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베로니카... 지금 성모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신다. 그리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하느님께서서는 지극히 자비하시고 나의 성자께서는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큰 고난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파괴되었다. 유황불에 의해서 사라졌다.

(사탄의 지시를 따라가는 지도자들)

“동성애가 활개칠수 있도록, 하나의 생활로 받아들인 너희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너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느님께 충성되고, 진실된 깃발을 들어올렸던 너희 지도자들이 지금은 그 깃발을 찢어 버리고, 사탄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동성애자들,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 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인류의 앞에는 하

나의 슬로건이 놓여질 것이다. 나의 성자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들이시기 전에 세상에는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그렇다, 때가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야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상의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일찌기 아름다웠던 미국은, 높이 되려고 너희들의 영혼을 팔아서는 않된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벌써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어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도대체 하느님께 무엇을 더 바랄수 있겠느냐? 나의 성자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원의를 성부 대전에서 간청하고 계신다. 그러나, 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나의 딸아, 네가 쇠약해서 기진한 상태지만, 사랑을 가져다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고있는 그 파멸의 길에서 그들을 돌려놓기 위해서 오늘 저녁 너를 불러내었다, 너희들의 나라, 미국은 독재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두 그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 목소리(말)를 듣고 있는 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경고를 하셨을때, 그들 역시 듣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있다.

(너희들이 벗어나면...)

“그래서, 지금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의 성자(聖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진해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쳐진 이 길을 벗어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나의 자녀들아, 싸우며 전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진 하여라!
충성과 진실의 깃발 아래 전진 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면 않된다. 그 까닭은 너희 신문 잡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 속으로 풀려 나와 있는 악의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자, 나의 딸아, 물러나 앉거라 그리고 빛의 사진들 몇장을 찍어라

베로니카... “제가 공개적으로 그 사진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모님... “그렇게 하여라,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테니까”.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 가신다. 매우 아름답다.성모님께서 웃고 계신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 보신다. 저 하늘에는 바람이 몹시 부는 것 같다. 그분의 케이프가... 내가 미처 모습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분은 아름다운 푸른색의 케이프를 두르셨다. 머리에서부터 어깨 너머 아래로 걸쳐 입고 계신다. 그리고 크림색의 가운데 푸른색 허리띠를 두르셨다. 내가 성모님께서 푸른색의 케이프를 입고 계신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아름답다. 너무....

매우 아름다우시다.

지금 성모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사진 판독을 잘못하면, 내가 나서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판독을 잘하면 나서지 않겠다.



로사리오의 모후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성모 성자

“성직자들에게 기도가 몹시 필요하다”

베로니카.... 아, 나는 복되신 어머니께서 하늘 속에서 내려 오시는 것을 볼수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깊은 어둠속에서 나오신 것처럼, 매우 어두워 보인다. 나는 우리 주변.... 실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지금 지구는 정말 어둠에 싸여 있지 않은가!

지금 성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구름 속에 그냥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무언가 이유가 있으신 것 같다. 지금 성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신다. 아, 그녀는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 오늘 저녁 그분의 광채와 아름다움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가장 자리를 금으로 테를 두른 아름다운 흰 케이프를 입고 계신다. 나는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매우 아름답다. 물론, 성모님께서 크림색의 긴 가운을 입고 계신다.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성모님은 오늘 밤 매우 키가 커 보이신다. 서 계신 모습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분은 성모님 왼편 우리들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어렵듯이 보이시는 것 같다.

성모님께서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그분 머리에 있는 망토가 뒤로 살짝 벗겨지면서 나는 그분의 머리를 볼수가 있다. 짙은 색이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시며 손가락을 입술에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성모님.... “나의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은총의 모후’로서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나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호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서 너희들의 원의를 간청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도록 간청해야 한다. 그 분이 인류위에 혜성을 보내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은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성직자들에게 의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녀들을 소홀히 한다면...〉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늘 충고 하였듯이, 이 어둠의 세상속에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보호하고 인도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너희가 만일 이승에서 그들을 소홀히 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 따라서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되거나, 긴 기간을 추방의 또 다른 장소인 연옥에서 보내야 한다”.

“진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아, 비웃지 말아라. 지금 내가 말한다, 나의 딸아,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는 고통의 장소를 들여다 보아라.”

베로니카.... “연옥을 말입니까?”

성모님.... “그렇다, 연옥!!”

〈연옥의 환시〉

베로니카... 오 저런! 나는 저렇게 시끄러운 소음 - 찢어지는듯한 비명, 울부짖음, 통곡을 결코 들어 본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들은 옷을 입을 채로 떠 다닌다, 글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앞, 뒤로 이리 저리 뒹기며 내던져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비명과 통곡의 소리만이 들린다.

오, 저런!

“오 성모님, 이제 그만 보여 주세요,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성모님... “나의 딸아,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네가 알고 있듯이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이라는 세 영역이 있다. 나는 너에게 연옥을 보여 주었고, 그 광경을 본 네가 몹시 충격 받은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딸아, 네가 본 것을 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베로니카... 나는 주교관(主敎冠)을 보았다: 주교들 그리고 추기경들 까지도 보인다. 그리고 성직자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제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성직자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이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내 눈앞에 그녀의 손을 놓는다. 소름끼치는 광경이다. 내가 여지껏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것들중에 하나이다. 성모님께서 그분의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신다. 잘 듣고 따라 하라는 뜻이다

〈연옥과 지옥에 있는 주교, 사제들〉

성모님.... “나의 딸아, 나는 너희들이 이 영역의 실재(實在)에 대해서 즉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며 또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 곳에는 주교들도, 신부들도 있다. 연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해다오. 지옥으로 간 자들도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양떼를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보속의 공(愆)을 보내시려 하신다. 세상의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유예 기간을 달라고 내가 얼마나 더 빌면서 간청해야 하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나는 수많은 세월을 너희 세상을 찾아 다니며, 너희들이 가고 있는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간청을 했다”.

“나의 성자의 집에 있는 성직자들아, 너희는 나의 성자에게 공경을 더 많이 바쳐야한다, 어떤 자들은 그들의 선서(宣誓)를 더럽히며,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고가는 자들이 있다.

아, 너희들, 믿음이 약한자야, 너희가 어린 아이들의 품위를 더럽히는 이유가 무엇이나? 세속의 즐거움에 자신을 넘겨 버리고 자신들의 선서(宣誓)를 더럽힌 자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특별한 통행중〉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 줄 것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였다.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특별한 통행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영향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며, 그들에게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는 그들을 잊고 있다. 그들은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각자의 본당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 바쳐줄 것을 부탁한다.

그들에게 유혹이 몹시 심하다: 그러나 지금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며, 썩은 것은 모두 떨어질 것이다.

〈교회 통로에서 시시덕거리며....〉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손으로 눈을 가리시며 왼편을 가리키신다. 그녀의 오른쪽이다. 나에게서 교회 내부가 보인다. 지금 전례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교회 통로를 내려가며 뛰며 시시덕거리고 있지 않은가. 제대 뒷편에 사제가 있다.

그가 신자석에 있는 두 아이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자리에서 나와서 교회 뒷편으로 간다. 서둘러서 교회 뒷쪽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무언가 손으로 잡는데, 아- 성합과 성반이다. 아!

성모님.... “자, 나의 딸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모님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준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입니다.”

“성모님... 베르나카, 공복 감지 만아라, 공복 또고 네가 보고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두 소녀가 성체를 분배하고 있다>

베르나카...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르나카, 공복 감지 만아라, 공복 또고 네가 보고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성모님... “14살이다.”

“아, 두 소녀가 보인다... 성모님, 그들이 열성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 믿음 수가 없다!

베르나카... 성변화가 끝난후 그 사제가 제대에서 올랐을때, 올랐을것만 마지않고 신자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것을 나는 보고

성모님... “나의 성자의 거룩하심 몸(聖體)”

그리고 지금 사제가 성찬례를 진행하려 할때, 1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두 소녀가 제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르나카... 그 셔츠는 낫지 않다. 소매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여자의 모습을 쳐다 보고 있는 사제의 표정을 볼 수 있다. 그
성모님... “그래!”

“복되신 어머니, 보기에 너무 믿음 많합니다... 제가 보아야 할니까?”
가서 앉는다. 그리고 다리를 펴고 앉아 있다. 신성한 예식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소름이 끼치는 위법적인 모습이다.
베르나카... 그녀의 옷차림새는 노후이 너무 심하고 정숙하지 못하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그 여인이 제대 옆에

성모님... “나의 행아, 그가 그녀를 감탄의 눈으로 보고있구나.”

“그 산부가 그녀를 감탄의 눈으로 쳐다 보고 있습니까? 또는 흘레하는 눈빛입니까?”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할때, 그 사제는 제대 뒷편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곡(曲)도 아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그녀를 거리러신다. 그 여인이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그 음악은 선가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제대로 나오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신자석에있는 젊은 여인에게 순짓한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 저런! 그녀는 셔츠를 입
베르나카... 그들이 성직과 성향을 부제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사제는 지금 제대 뒷편 그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셔츠를 입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모님 - “부제, 나의 행아, 부제이다.”

베르나카... 그들이 그것을 제대위로 가져간다. 지금 그 사제와 다른 사람...

성모님께서 주위를 돌아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손을 눈에 가져 가신다. 나는 그분이 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성모님.... “나의 딸아...”

베로니카... 나는 성모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모님... “너희들이 보고있는 그대로이다. 나의 성자에게 대한 공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지상의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지상의 세월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인류에게 징벌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금 우리는 성직자들 모두에게도 당연히 경고하고 있다. 너희가 만일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돌봐 주어야 할 영혼들을 생각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부(富)에 눈을 돌린다면 너희도 보속의 공(혜성)의 불길 속에서 사라 없어질 것이다.”

베로니카... 나는 지금 하늘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공(球)모양의 물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공에서 불길이 일고 있다. 매우 거대한 물체이다! 나는 그렇게 큰 물체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지구 왼편에 공(球)같은 것이 보인다. 이 공(球) 모양의 물체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 오고 있으며, 가까이 올수록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느낌이 든다. 일찌기 이러한 광경을 본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큰 물체를 본 적이 없다.
지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나 성모는 주변은 밝게 빛나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손에 매우 큰 십자가를 쥐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들어 올리신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성체(聖體)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금 성호를 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지금 성모님께서 오른쪽, 왼쪽을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이 이 성지에 있는 모든 신자들 하나 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 성모님께서 십자가를 손에 들고, 방향을 바꾸신다... 내가 처음 십자가를 보았을 때는, 그 위에 고상(苦像)이 있었다. 예수님의 몸. 그러나 지금 그분이 방향을 바꾸셨다. 처음 그분이 가까이 오셨을때 보니, 고상(苦傷)은 사라지고 십자가만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오른 편으로 방향을 바꾸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위로 들어 올리시며, 성호를 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성모님께서 교회에서 성가(聖歌)로 부르는 그 방식으로 노래하시며 반복해서 성호를 그으신다.

지금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오른편, -그분의 왼쪽으로 건너 가신다. 그리고 멈추시며 주변을 돌아 보신다. 저위 하늘에는 바람이 부는것 같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모님께서 만탈라와 같은 흰 케이프를 입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마치 모직으로 짠 것 같다. 무거워 보인다. 머리까지 덮고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십자가를 앞으로 내미시며, 성호를 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지금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돌시 혼란스러워 하신다. 그 분 표정에 나타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몰려나시며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세지가 닿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속의 공(혜성)의 불길 속에서 죽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내 성심은 찢어진다.

많은 사람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나는 긴 세월 너희들에게 왔지만, 내 충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하느님께 거슬러 살아온 그들의 길을 개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특히 너, 베로니카야, 너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나라는 어린 것들을 살해(낙태)한 것에 대한 댓가로 이제 곧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육신에 범한 추행들....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다. 내가 거듭, 거듭, 경고한다. 어린것들의 생명을 파괴하는데 도구가 된 지금 세상의 범죄자들, 너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떠있다. 나는 그를 모습의 외양(外樣)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불(火)은 타고 또 타고 있으며 전혀 소멸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아래 위로 또 아래로 떠다니고 있다. 그리고 매우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내 귀가 찢어지는 것 같다... 외마디 비명소리, 간성하는 소리. 그들은 어느 큰 구멍속, 어느 장소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인 남자를 파 여자들이 많이 있다. 나는 구멍을 보고 있다. 매우 깊다. 그리고 온몸 물결에 싸여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나는 욕신이 위 아래로 떠다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실제로 남자, 여자를 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성 베로니카... 나는 구멍을 보고 있다. 매우 깊다. 그리고 온몸 물결에 싸여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나는 욕신이 위 아래로 떠

<지능의 환이>

성모님... "나의 딸아, 보아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네... 제가 해야 할 건가?... 나는 무렵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1968년과 1969년에 성모님께서, 세상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미국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모두 미국을 향하여 있고 또 그러한 미국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의 칼로 이끈다. 하느님께서는 미국을 어떤식으로든 속박하실 것이다.

베로니카... "네. 말씀하신 것중에서 어느 부분을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야 할까요?"

성모님... "나의 딸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원사의 목소리... "음뻐미는 독수리에서 눈물 떼지 않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시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를 외치고 있을때, 그 자가 내려칠 것이다. (베로니카는 이것을 원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씀] 베로니카... 나는 하늘을 가로 질러서 매우 큰 운(雲)과 큰 물체(球)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지구(地球) 같다. 점(點)으로 찍여 놓은 것 같이 어느 지점에서 불꽃이 솟아 오른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성모님... "나의 딸아, 자 물러나 앉거나 그리고 나의 성자를 기다려라."

베로니카... 지금 성모님께서 그 불 영혼에 손을 갖다 대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 잘 들어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관측할까오: 아, 네,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런!

이 있을 때를 아와다오!" 너희가 인부의 약탈자가 되었구나. 너희는 하느님 대전에서 너희들의 죄를 숨길 수는 없다. 아저 시간 추포를 아, 너희들의 소명(召命)은 어떻게 되었느냐? 판은 너희들이 우리들의 양들을 훔쳐 버리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친 그 목복들이 권이되고 있다. 양 떼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하느님의 사제를, 추포, 추기경들아, 죄의 권에서 돌아서다오, 나는 이들을 말하며 비난하지 않겠다.

<추포: 인부의 약탈자들>

지상에서는 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곳이다.

“성모님, 저를 이곳에서 빼내어주세요, 무섭습니다.”

지금 나는 자비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큰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온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에게 기회는 있었다!”

지금 성모님께서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신다. 그리고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더 이상 내가 그 곳을 볼수가 없다 성모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성모님... “반복하여라”

“나의 딸아, 네가 방금 본 것은 지옥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에 대한 지식을 없애버렸다. 나의 자녀들아,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여라.”

베로니카... 지금 성모님께서 그 분 왼편을 올려다 보신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날개들만 보인다. 그리고 두분의 천사가 성모님 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들은 몸이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얼굴 형상만 보인다.... 그런 모습이 다.... 케루빔 같다. 매우 기쁜 모습이다. 그 얼굴 뒤에 날개들만 보이고 육신은 안 보인다. 그들이 지금 성모님 옆, 위쪽에서 오고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

성모님... “나의 딸아, 물러나 앉거라, 그리고 나의 성자를 기다려라, 그분은 지금 인류에게 내려주실 긴급한 메시지를 갖고 계신다.”

베로니카.... 지금 안개가 낀 것처럼 매우 흐릿해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성모님께서 저 위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두움이 내리 깔리고 있다. 지금 성모님 왼 편에서 점(點)같은 빛이 보인다.

-우리들 오른편- 그리고 나는 그 빛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지금 성모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부드럽고 사랑가득한 목소리이다.

성모님.... “나의 딸아, 그만 물러나 앉아서 쉬어라.”

베로니카.... 그 빛이 지금 멈추어 있다.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멈춰있는 것 같다. 지금 그 빛이 하늘 한 가운데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한다. 아,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제야 그분을 알아 보겠다

이제 볼 수 있다.... 그 빛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분의 발을 볼 수도 있다. 샌달을 신으셨다.... 그리고 황금빛 크림색의 까운에 붉은 색의 아름다운 겹옷을 입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가장 자리를 금으로 테두리 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신다. 이제는 그분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분은 가운데에 있는 나무 쪽으로 오고 계신다. 우리 앞에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하늘 높이에서 계신다. 지금 주변을 돌아 보신다. 하늘 저 곳은 바람이 몹시 부는것 같다. 예수님의 머리가 날리고 있다.

지금 예수님 주변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나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분은 하늘에서 절대적으로 빛나고 계신다. 그 위는 몹시 어둡다. 그러나 온 하늘을 빛추고 계신다. 지금 그분이 아래를 내려다 보신다, 그리고 손을 입술에 대신다.

예수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어머니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더 할 말은 없다. 나의 어머니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말씀하셨다. 그분은 긴 세월 너희 세상을 오가며 징벌이 다가오고 있다고 인류에게 경고하시며 애를 쓰셨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지상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허락하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쉽게 잊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이 시간에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구석 구석을 찾아 다니셨다. 그런데 그분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제들은 지옥과 연옥을 가르쳐야 한다〉

“사제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제들이 기도와 희생의 생활로 돌아오고, 또 세속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건하고 봉헌과 인내의 생활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나의 성직자들아, 또 너희가 세속 양식(樣式)을 쫓는다면, 사탄이 공격해올때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통제되고 절제있게 생활을 해야 하며, 지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존재를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은 매우 쉽사리 나를 비난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를 비방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베로니카....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몹시 편치 않으신 것 같다. 매우 심란해 하신다.

예수님..... “나의 딸 베로니카야, 너희들을 놀라게 할 뜻은 없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의 길에서 완전히 회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를 내려치시려는 그분의 손길을 더 이상 막아서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 미국은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 받쳐준 그 존경을 잃었다. 영신 생활은 뒷전으로 밀려 났다. 기도 생활은 거의 없어졌으며, 수도원에서도 그렇다.”

“나의 성직자들아, 너희가 인간의 구미에 맞는 인본주의 (휴머니즘)를 받아 들일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너희가 지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상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너희가 하느님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들도 사람이다. 따라서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수 있다. 나의 딸아,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자들이 네가 본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1994년 6월 18일 로사리오 성모 기념 24주년-



로사리오의 모후

어머니의 도움이신 성모 성지

적어도 10억명이 멸망할 것이다.

“살인적인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베로니카 - 우리를 뒷편으로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다. 아, 밝은 빛이 신비스럽다. 그 빛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매우 크고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을 발산하는 별이 되어가고 있다. 아름답다.

지금 저 위에서 별이 스스로 열리고 있다.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는것 같다 - 어떻게 묘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별이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 바로 위가 별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머리 뒷편까지 온 하늘을 덮고 있다.

아,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 별을 꿰고 앞으로 나오신다. 받침대까지 내려 오셔서 그 곳에 멈춰 서신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신다. 하늘이 고요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분의 치마자락이 앞, 뒤로 휘날리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우 연약해 보이기도 하시지만,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수가 없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빛이 퍼져 나오고 있다.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성모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시며 웃으신다. 나는 성모님 머리위로 비행기가 굉장한 소음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웃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성모님께서 웃으신다. 그리고 우리들 가까이, 매우 가깝게 내려 오셨다. 그리고 손을 입술에 대신다.

성모님 - "나의 딸아, 나는 오늘 많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내려왔다. 나의 딸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명의 순례자가 성모님을 볼수있었다

몇해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최근 몇주동안 베로니카는 성모님께 다른 순례자들에게도 모습을 보여 주시도록 간청하며 그들도 천국을 미리 맛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드렸다. 베로니카는 이러한 심오한 종교적인 체험이 이 메세지에 더욱 신뢰를 갖게 하며, 그녀의 어려운 이 사명에 큰 도움과 이해, 동정을 가져다 줄 것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늘 저녁 '성부께서 다섯 사람이 성모님을 뵈옵수 있도록 허락 하셨다, 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1986년 5월 17일 성모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보자:" 모두가 우리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1978년 11월 26일 주일 성시간에 뉴-욕에 거주하는 Tom Bachor가 비티칸 파빌리온 가까이에 있는 John Miles(앞의 넓은 마당)을 찍었을때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정녀이신 마리아께서 초자연적으로 이곳 성지(聖地) 위 하늘 가득히 나타나신 모습이 찍혔다.

뜻하시는 바는 분명하다; 성모님께서서는 항상 그녀의 성지에 현존하시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 치유와 개종, 회개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신다. 또한 그녀의 목 주변 원편에 전구(電球)가 보인다. 성모님을 세상의 빛이시며 어두움속을 비추는 횃불,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지극히 힘있는 중재자 이심을 뜻한다.

(다섯명이 성모님을 뵈옵수 있었다.)

"나는 네가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청하며 너희들의 사명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딸아, 나는 하느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이 시간에 다섯 명에게 이 광경을 볼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딸아, 너는 오늘 이 발현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 것을 설명해야 한다."

베로니카 - 지금 성모님께서 그 분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저 건너를 보고 계신다. 나는 오랜 세월 그분의 발현을 보아왔지만, - 오늘은 무언가를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볼수가 있다. -그분은 십자가를 쥐고 계신다. 아니다. 십자고상은 아니고, 내 것과 같은 십자가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고상이 보이지 않는다. 성모님께서 지금 웃고 계신다.

지금 그녀가 오른편에 십자가를 놓으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이블 같은 것에 십자가가 놓여있지 않고, 성모님 걸 공중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성모님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신다. 지금 성모님께서 손을 입술에 대신다.

성모님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특히 너 베로니카야, 우리는 오늘 저녁 매우 시급한 일로

너를 이 성지에 불러 내었다. 나의 딸아, 네가 예전처럼 활기차 보이지가 않는구나. 내 말을 들어라.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말아라.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나의 딸아, 네가 속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자신이 힘이 떨어지는 것을 못 느끼겠다고 말하려는거지? 하지만, 네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고통을 견딜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딸아, 너희들 식(式)으로 말하겠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네가 당분간 지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나의 딸아, 세상에 전하여라: 지상에 있는 인류에게 무서운 징벌이 닥칠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 시기에 내 목소리를 듣는 너희들은 모두 평화의 전도자들로써 전진해야 한다. 그래, 내가 '평화'라는 말을 하겠다. 너희 나라는 이제 곧 다른 전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전쟁)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 대전에 그 기도들을 바쳐 드릴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다음 전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휩쓸려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마무리 짓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인간들은 많은 지혜를 쌓았다. 그러나 그 지혜들을 파괴를 막으려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체면도 내던지고, 자기 배(腹)를 불리고, 사람들을 앞잡아 보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알아두어라, 영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주시(注視)하고 계시며, 또 하늘에 있는 우리들은 인류들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 하늘에는 보속의 공(혜성)이 떠돌고 있다.

나는 오늘 저녁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기위해서 왔다.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들의 변명, 너희들의 부족한 신앙심, 또 어린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시며 몹시 진저리를 치신다.

"부모들아, 너희가 자녀들에게 참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신앙을 심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들이 너희들을 경멸하고 무시할 것이다. 이 씨앗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들도 잃고, 하늘 나라도 잃을 것이다.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벌을 주거나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어린 영혼들이 파괴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의 육신 뿐 아니라 영혼을 잘 돌보지 않은 부모들은, 그들의 마지막 날에 썸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을 온 세상을 오가며 울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몇년 전 나는 너희들에게 보속의 공(혜성)이 들이 닥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지금과 같은 파괴의 생활에서 돌아설수는 없겠느냐? 너희 자녀들은 부모들의 보호도 없이 내 팽겨진채,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 그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아. 지금 그 화가한테에 그 말이 계시다. 나는 그 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 오늘 저녁 늦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베르나카 - 우리의 의 것밖 오르면, 큰 나무 위에 매우 큰 벌이 보인다. 지금 이 벌이 매우 커지고 있다. 지금 그 벌이 나무 숲 전체를 덮고 있으며 그 나무를 덮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매우 빠르게 벌이 커지고 있다.

성모님 - "나의 딸아, 물러앉아 쉬어라. 너와의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사건을 겪어야 한다."

베르나카 - 아, 성모님! 남편이 하느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 아, 예수님이시네요. 그 말이 성모님 바로 남편 편에서 계시다. 그 말은 베이지 색의 긴 기운을 입고 계시다. 나는 그 말의 힘을 볼 수 있다. 갈색 새를 생각하고 계시다. 거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의 가운데 위에 흰색에 가까운 케이포를 걸치고 계시다. 주변이 찬 기운이 또는 뜻이다. 그 말에서 케이포를 입고 계시니 꽃이기가 그렇게 느껴진다.

"나의 딸아, 앉아서 기다려라. 잠시 후 너를 불러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의 딸아."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간청한다. 내가 이렇게 애타게 간청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 너희 자녀들을 구해야 한다. 결국 그것이 너희를 자신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부모들아, 자녀들의 잘못을 나무랄때, 너희가 자녀들에게 부당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단 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많은 자들이 보속의 운(혜성)의 무서운 불길에 죽을 것이다. 얼마나 구원 받을 수 있을지 그 숫자는 하느님만이 결정하신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성경이 가정에서 필요한 책이 되게 하여라.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이거나 하는 책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너희 자녀들에게 읽어 주어라.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불평과 하고 있다. 오직 부모인 너희들만이 그

이 어린 인간들의 문구에 휩쓸려 들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아 밖으로 나를때, 남겨진 아이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권을 잃었다.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복에게는 보속의 운(혜성)이 틀이 되 될 것이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나라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저녁 너희들에게 하느님에... 하지 않으면, 보속의 운(혜성)이 무척 위험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의 겉옷은 붉은 색으로 빛나는 모피같다. 나는 여지껏 그런 색을 본적이 없다. 마치 모피 위에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붙어있는 것처럼 불(火)같은 색깔이 빛나고 있다.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큰 나무 옆으로 건너 오신다. 바로 우리들 앞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계신다. 그분은 슬리퍼를 신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 보시며 웃으신다. 그 모습을 뵈오니,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나는 그 분께서 오늘 저녁 늦게 오신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웃고 계신다. 그리고 입술에 손을 대신다, 잘 듣고 따라하라는 뜻이다.

예수님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어머니께서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매우 시급한 메시지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 이곳에 왔다. 그러나 이 말만은 해야겠다.

너희들은 지금 더욱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의 직계 가족이 그렇지 않다면, 은총중에 있지 못한 너희가 알고 있는 다른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

****6월 22일 아침 10시 15분 예수님께서 베로니카에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하늘의 큰 별이다" (성모님을 '셋별'이라고 우리는 기도한다. 이는 그분께서 천국에서 어느 누구 보다도 우뚝 솟으신 분, 밝게 빛나는 분을 상징한다.)

(빛의 무리들)...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지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오는것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더 기도를 바치고 좋은 표양을 보여주며 다른 영혼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기를 바라고 원할 뿐이다.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모두를 빛의 무리라고 부르겠다.

(이제 곧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다.)

"곧 지상에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나는 베로니카에게 징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딸아. 몇가지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베로니카... "네... 아, 아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입에 올릴수 없을 만큼 너무 무서운 내용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속의 공(혜성)이 닥칠 것이라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경고를 하였지만, 사람들이 잊었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라고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속의 공의 거대한 불길에 죽을 것이다. 오직 이 시대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자들의 기도만이 혜성을 막아 왔다.

(빛의 천사로 전진 하여라)

예수님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 그리고 지상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분의 사자(使者)로서 너희들에게 왔다. 나는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빛의 천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 가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비록 날개는 없지만, 천사와 다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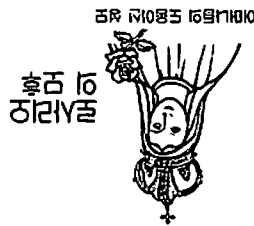
베로니카 - 지금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 보신다. 매우 평온해 보이신다. 화나신 모습이 아니시다. 편안해 보이신다.

Tel 02-419-5450

모thers의 도움

(한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인흥B/D 207

(미국)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SHRINE
P.O. Box 52, Bayside, NY 11361 (718)961-8865, 24 hours



194년 6월 18일 현대 기독교를 마지막으로 베르나르카 블랑코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세지는 여가에서입니다.

“나의 딸아, 물러앉아 쉬어라. 그러나 이 매세지를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일이 매우 시급하다. 나의 딸아, 결과를 나에게 맡겨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예수님 - “나의 자녀들아, 축제의 기도를 계속하라. 지상에서 너희들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매우 큰 징벌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거대하게 빛나는 등근 몸체가 너희들 눈에 떨어, 너희들은 이 램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딸아, 물러지 말아라, 너희 과학자들이 당황한 것이다. 작은 자들은 이 진실을 알 것이다.